

## 함께 읽어보세요

- . 정의가 없는 곳에 자유는 없다. 자유 없는 곳에 정의는 없다. (H.조이제)
- . 정의는 정당화될 수 없는 불평등이 없는 상태다. (존 롤스)
- . 정의의 본질은 평등이며,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될 수 있다.(아리스토텔레스)
- .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신명기 10:17-18, 개역개정)
- .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미가 6:8, 새번역)
- .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시편 85:10, 새번역)
- .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고린도전서 1:27, 새번역)
- .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야고보서 2:22, 새번역)
- .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전도서 4:12, 새번역)
- .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복음 16:33, 새번역)



문화선교연구원  
Center For Cultural Communication

문화선교연구원은 교회의 문화선교를 도와 복음적 가치를 담은 문화를 창조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신실하게 참여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27 하늬솔빌딩 A동 B1  
02.743.2535 | www.cricum.org | cricum1@naver.com

[www.facebook.com/cricum](http://www.facebook.com/cricum) | [story.kakao.com/ch/cricum](http://story.kakao.com/ch/cricum) | [twitter.com/cricum1](http://twitter.com/cricum1)



# TRASH



영화, 함께 보고 이야기하자!

## Movie Discussion Guide

문화인들을 위한 신개념 목상토론

영화는 시대의 사회문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의미를 생산해내는 힘을 가지고 있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영화 '읽기'는 이 세상 가운데 선한 가치를 이루며 '어떻게 살 것인지'와 결코 무관치 않습니다. 다음의 질문을 통해 문화를 읽고 이야기 나누며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신영복)이라는 말처럼 쉽지 않은 이 여정에 참여해보세요.  
※ 다운로드 ☞ [www.cricum.org/855](http://www.cricum.org/855)

감독: 스티븐 달드리

출연: 릭슨 테베즈, 에두아르도 루이스, 가브리엘 와인스타인, 루니 마라, 마틴 쉰

정의를 향한 활기찬 동력이 꿈틀대는 영화 <트래쉬>의 이야기는 제목처럼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의 쓰레기장에서 시작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쓰레기장,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에 검은 돈의 단서가 담긴 지갑 하나가 흘러 들어온다. 그곳에서 일하던 열네 살 소년 '라파엘'과 '가르도'는 우연히 그 지갑을 발견하게 되고, 직감적으로 그 지갑에 사연이 있음을 느낀 두 소년은 하수구에 사는 친구 '가브리엘'과 함께 단서를 따라 긴 모험을 시작한다. 부패한 정치인과 그를 둘러싼 절대적인 공권력을 상대하는 소년들은 다소 무모해 보인다. 어쩌면 더 잃을 것이 없는 소년들의 모험은 거침없는 일종의 놀이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끊임없는 추격과 목숨의 위협까지도 무릅쓴 그 모험을 함께하며, 영화 속 줄리아드 신부(마틴 쉰)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질문하게 된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영화 전체에 촘촘히 삽입된 장르를 망라한 경쾌한 음악과 리듬은 마치 정의를 추구하는 삶,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응원하는 것 같다. 영화의 템포처럼 정의를 향한 길은 어렵고 힘들지만, 힘과 흥이 있다. "옳은 일이니까요(because it's right)"라는 단순하지만 힘 있는 이 대답에 다른 어떤 말도 더 할 수 없는 까닭도 그 때문이다. 숨겨둔 돈을 찾아내 쓰레기장에 뿌리는 장면은 돈이 지닌 추악한 성질을 풍자하면서도 비현실적인 '분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카타르시스보다 더 신나는 일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노동의 장이 펼쳐진, 쓰레기장이 아닌 바다를 만나는 일이다.

 심윤정 프로그래머

Movie Discussion Guide(무비 디스커션 가이드)는 영화를 본 후, 영화 읽기를 돕기 위해 문화선교연구원과 작은영화관 필름포럼에서 제공해 드리는 토론자료입니다. 토론 후 후기를 연락처와 함께 필름포럼 데스크나 문화선교연구원(cricum1@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필름포럼 영화관람권을 드립니다.

1. 영화가 어땠는지 간단히 나눠보세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도 함께 말해보세요.
2. 영화에서 "왜 포기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옳은 일이니까요."라고 말하는 가르도와 친구들. 옳은 일, 즉 '정의'란 무엇일까요?
3.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주춤하거나 타협하게 만드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옳은 일에 신념을 다 한 적이 있었다면요? 아니라면 이유는요?
4. 세 친구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정의를 이루어갈 때 그 동력은 무엇일까요?
5. 감독은 영화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요?
6. 영화 제목이 의미하는 '쓰레기'(Trash)는 무엇일까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